신안군, 신안1004몰 1주년 성과 보고회 개최

1만100여 명 회원 확보, 8억3천만 원 판매고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지난 25일 군청 공연장에서 신안1004몰 1주년 성과 보고회를 개최했다.

신안1004몰은 농어가 소득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개설된 농수특산물 온라인 쇼핑몰로, 왕새우, 천일염, 김, 병어, 민어, 낙지, 새우젓, 유기농쌀, 마늘, 양파, 섬초, 대파 등 오염되지 않는 청정 지역에서 생산돼 영양이 풍부하고 맛이 좋은 340여 개의 농수산물을 1004몰에 입점 1만100여 명의 회원을 확보해 8억3천만원의 판매고를 올렸다.

관내농협을 비롯한 100여 개 입점업체가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이날 보고회는 위탁운영사로부터 1년차 완료보고 및 2년차 운영계획, 입점업체의 유통마인드 교육과 상세페이지 제작지원 안내, 입점업체 애로사항 등을 청취해 문제점 개선 및 신안 1004몰 운영의 업그레이드를 통해 서로 소통하고 상생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신안군은 하반기 신안1004몰 운영에 박차를 가해 새로운 상품 발굴, 4계절 꽃피는 1004섬 신안의 아름다운 꽃축제 및 관광지와 연계한 농수특산물 기획전, 라이브커머스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매출 극대화에 나설 계획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신안1004몰 입점업체 여러분이 한마음으로 고품질 상품을 준비해 신안군 농수특산물의 우수성을 널리 알려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와 사랑을 받는 신안1004몰이 되도록 친환경 농수특산물의 제품 다양화와 신선제품 개발, 소포장화 등 소비자 기호에 맞는 품질 고급화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홍근 기자

신안군(군수 박우량)은 지난 25일 군청 공연장에서 신안1004몰 1주년성과보고회를 개최했다. 군은 하반기 신안1004몰 운영에 박차를 가해 새로운 상품 발굴, 신안의 꽃축제 및 관광지와 연계한 농수특산물 기획전, 라이브커머스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 매출 극대화에 나설 계획이다. /신안군 제공

영암쌀 특별할인 판매 실시

영암군에서는 영암군농협쌀 조합공동사업법인과 함께 영암쌀 소비촉진 일환으로 영암군 대표 브랜드 쌀 '달마지 쌀' 특별할인 행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생산 농가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영암군청 전 직원을 대상으로 1인 1포 사주기 운동으로 시작해 관내 기업체, 유관기관 사회단체, 재경 영암군 향우회원 등에게 지역쌀 사주기 서한문 등을 발송 소비 촉진을 추진할 예정이다.

행사 기간 동안 달마지 쌀 10kg을 6,000원 할인해 3만 원에 판매할 계획이다.

영암 달마지쌀 구매를 희망하는 분은 군청 친환경농업과 농산물 마케팅팀(061-470-2376)으로 또는 영암군 통합RPC(061-471-0215)을 통해 택배로도 받아 볼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행사가 고품질 영암쌀의 우수성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영암쌀 홍보와 쌀 소비 촉진 행사 등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유빈 기자

해양수산부, 강진군 어촌양식 현장 방문

군, 전복 양식장·어촌체험휴양마을 등 지원 건의

최근 해양수산부 최현호 국장이 어촌양식 정책현장 점검을 위해 강진군 마량항 일원을 방문했다.

해수부, 전남도, 강진군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마량항 물양장 확장 공사 현장을 방문해 혹서기 안전 대책을 점검하고, 해상 전복 가두리 양식장을 방문해 고수온 대응사항 점검 및 어업인들의 고충을 청취하고 격려했다. 또, 여름 휴가철 대비 서중 어촌체험휴양마을을 방문해 방역 관리사항을 점검했다.

특히, 해상 전복 가두리 양식장에서는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인한 양식장 주변 담수화로 전복 2,261만 미가 모두 폐사됐다. 이에 군에서는 우량종묘를 입식하고, 재해예방 양식그물로 전량 교체했으나, 종묘 생장시기가 3년 이상 소요돼 어업인의 생계가 곤란한 상황이다.

현장에 동행한 유미자 부군수는 전복 가두리 양식장 피해 상황을 강조하며, 피해어가에 대한 전복 중패 입식 지원사업과 노후화된 서중 어촌체험휴양마을 시설물 리모델링 및 체험 프로그램 발굴 등 활성화 지원을 건의했다.

현장점검에 참석한 해수부 관계자는 강진군에서 건의한 전복 중패 입식 지원, 어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 사업 등에 대한 국비 지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강진원 군수는 "전복 중패 입식 지원사업과 어촌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사업은 주민과 어민들의 소득증대와 함께 관광객 편의를 도모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하며,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사업시행을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박종옥 기자

함평,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확대 홍보

함평군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신규 혜택 추가에 따라 더 많은 주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27일부터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 SRT·KTX 요금 할인 등 임산부와 다자녀가족에 대한 복지혜택이 추가된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는 각종 출산 지원 서비스를 '정부24' 또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한 번의 신청만으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새롭게 추가된 서비스에 따라 임산부의 경우 SRT 30%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족(만 25세 미만 자녀가 둘 이상인 가족)은 세 명 이상 같이 KTX 또는 SRT를 이용하는 경우 어른 운임료의 30% 할인을 받게 된다.

정명희 보건소장은 "서비스 지원 대상자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자치회보, 마을방송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함평군은 △임신축하선물 △출산축하선물 '행복함' △첫만남 이용권(200만 원) △나비고을 출생아 양육지원금(300만 원~1천만 원) △육아용품 무료대여 등 다양한 출산·육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문수 기자

무안군, 양파 기계화 사업 본격 추진

무안군(군수 김산)은 오는 8월 5일까지 양파 기계화 촉진과 확대를 위해 양파 기계정식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양파 기계정식은 관행에 비해 10a당 36만 5천 원을 절감할 수 있고 양파 생산의 모든 과정을 기계화 시 생산 노력시간이 76%정도 절감 효과가 있다.

군은 올해 200ha의 양파 기계정식을 목표로 사업비 3억 2천2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기계정식을 이행한 농가에게는 현지 확인을 통해 신규농가에게 1ha당 203만 원, 기존농가에게 1ha당 95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육묘, 정식, 수확, 저장 등 양파농업 전 과정 기계화를 위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2년간 국비 22억을 포함 도비와 군비 등 44억의 사업비를 투입해 양파 기계화 우수모델 육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아울러 군은 전 과정 농업기계를 구입 후 생산자단체 중심으로 구성된 협의체에 농기계 내구연한 동안 장기 임대와 기계화 기반조성을 위한 육묘시설, 상자받침대, 톤백 등을 지원해주며 육묘의 실패율을 낮추기 위해 육묘기술 교육도 병행 추진 중이다. /고민재 기자

목포시, 수족구병 예방 당부

목포시는 전국 수족구병 환자 발생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어 예방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수족구병은 장바이러스 감염에 의해 발생하며 발열, 입안의 물집과 궤양, 손과 발의 수포성 발진 등이 특징이다.

수족구병이 발생하면 장난감과 물건 등의 표면은 비누와 물로 세척 후 소독제로 닦아야 한다. 소독제는 빈 생수통(500ml)에 종이컵 1/3의 염소계 표백제(4%)와 물을 섞어 사용하면 되는데 창문을 연 상태에서 소독하고 소독 후 환기해야 한다.

수족구병은 예방 백신이 없어 예방만이 최선이어서 ▲흐르는 물에 비누나 세정제로 30초 이상 손 씻기 ▲ 옷소매 위쪽이나 휴지로 입과 코를 가리고 기침하기 ▲장난감·놀이기구·집기 등 소독 등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박성태 기자